



“복음을 선행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20,28)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토마스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요한20,25)하고 부활의 기쁜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토마스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는 제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라도 보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보고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20,25)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보이고, 들리는데 닫혀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지내왔지만, 동료로서 함께 지내왔지만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문제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잠겨 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20,26) 그리고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



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20,27)

한주일 동안 토마스는 아마도 홀로 의심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토마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마스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 고집 부리다가도, 일 한번 당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토마스 사도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토마스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자 토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20,28)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내가 믿어야 만이 그분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결코 내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이 믿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20,29)

동료들이 말해 주었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 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24,48)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루카24,46) 즉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면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에 그것을 증언해야 하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보았기에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믿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걷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고 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으며,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 뵙고, 성체를 모신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으려 하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신앙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고 증거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기쁜 주일 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신앙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15,5)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앞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는 갈 길이면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앞자리에 모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요한15,6)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도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들이 겪게 되는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는 것입니다. 불어 던져 태워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인도 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할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께 대한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만 본당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 때, 나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말라갑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성성한 가지입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공동체 소식

5월 미사 안내

- 기도학교(5월 6일)
주요 기도문을 다 외우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간표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간: 12:40-3:30
- 서북미 성령대회(5/18-19)
5월 18일 오후 7:30 미사부터
5월 19일 오전 10:00- 오후 6:00
- 대부모학교(5/20)
대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대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시간표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간: 12:40-3:30
- Memorial Day 묘지 미사 (5/28)
5월 28일 1시 (성당 10시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성모의 밤 (5/31)
5월 31일(목) 저녁 7:30
5월 한 달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미사 안내

- 소공동체 위원회 안내
5월 2일(수) 저녁 미사 후 소공동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늘 열심히 구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구역의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백성을 더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봉헌합니다.
- 환자 봉성체 안내
5월 3일(목)에는 환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구역의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구역에서 봉성체를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면 꼭 묵주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성화 미사 및 성체강복
매월 첫 목요일은 가정성화미사로 봉헌되며, 하루 종일 성체조배가 있고, 저녁미사 후에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시간: 매주 주일 12:50-2:00
대상: 복사단에 속하지 않는 모든 청소년
 -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시간: 주일 오후 4:50-5:50,
평일(수):8:20-9:20
대상: 현재 청년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모든 청년
 - 청소년 레지오 단원에 대한 혜택
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키워 줌.
② 가톨릭 리더로서의 삶의 자세 양성
③ 기도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줌
④ 매 주일 푸짐한 간식 제공
⑤ 단체 영화감상 및 여름철 물놀이, 피정, 글로벌 친교 프로그램
- 레지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레지오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교리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방법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요한15,8)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열매이며, 가장 보편적인 열매가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평화를 깨면 그의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평화를 깨면 나의 천국도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화의 열매! 이것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의 기쁨을 맛 본 이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해지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분노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제하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